

## 장로회전국연합회 제58회 정기총회 개최

신임회장에 이 천 장로... 105회기 부총회장 후보로 황제돈 장로 추천

장로회전국연합회 정기총회가 지난 1월 31일 성결대학교 흥대실홀에서 개최됐다. '창조의 목적대로 사중복음의 증인 되자'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총회는 53개 교회에서 170여 명의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수석부회장 이천 장로의 사회로 시작된 개회예배는 예성장로회합단의 특별찬양 후, 총회장 홍사진 목사가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다'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홍 총회장은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길이다. 내 인생의 우선순위에 언제나 하나님이 먼저인 사람. 이러한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며 창조의 목적에 맞는 가치있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바란다"고 설교했다.

이어 증경부총회장회 회장 김종상 장로가 '국가와 국민을 위해', 원로·공로장로회 회장 박상길 장로가 '총회와 지교회 부흥을 위해', 남전도회전국연합회회장 이장호 장로가 '장로회 부흥을 위해'라는 주제로 각각 합심하여



기도했다.

신수동교회 임시영 목사는 환영사를 통해 "정기총회를 축하하며 교단과 개교회를 위해 힘쓰시는 장로님들의 헌신과 열정에 감사를 드린다"고 인사했다. 부총회장 이광섭 장로, 성결대 총장

정희석 장로가 격려사를 전했다. 한 국장로회총연합회 대표회장 전우수 장로, 기성 전국장로회연합회 회장 피상학 장로, 여전도회전국연합회 이해경 권사도 축사를 전했다. 교단총무 권순달 목사도 참석해 정

기총회를 축하했다. 총회장 홍사진 목사는 지난회기 회장으로 선진 황제돈 장로에게 공무패를 수여하기도 했다. 이어진 총회는 개회 등록 보고, 개회 선언으로 시작돼 회순통과, 사찰선거, 회부보고, 감사보고, 회계보고의 순으

로 진행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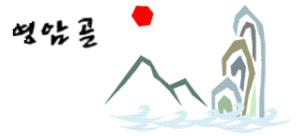
또한 58회기 수석부회장 및 임원, 105회기 교단총회 임원후보를 각각 선출했다. 이날 총회에서 신임회장에 이천 장로(신수동교회)가 선출되었으며, 수석부회장은 노재익 장로(부여한사랑교회)가 선출되었다.

또한 오는 5월 개최될 교단총회 임원 후보로는 부총회장후보 황제돈 장로(신림제일교회), 회계후보 박정식 장로(구로중앙교회), 부회계후보 김용빈 장로(신수동교회)를 각각 추천하였다.

회장으로 취임한 이천 장로는 취임사를 통해 "장로회전국연합회 본연의 업무와 전국교회의 발전을 위해 늘 깨어 기도하는 마음을 갖고 섬겨 나가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정기총회에서 선출된 신임 임원 명단.

△수석부회장 노재익 장로(부여한사랑) △총무 정태관 장로(부여규암) △부총무 오광록 장로(주님앞에제일), 서욱순 장로(두란노) △서기 박수남 장로(남부) △부서기 유희수 장로(더드림) △회계 최원후 장로(잠축은) △부회계 노윤성 장로(주님앞에제일) △감사 배대호(시흥중앙) · 정 현 장로(답십리).



### 오라 나의 봄아

고대 로마에서는 2월 15일을 특별한 날로 정해 자신이 지은 죄를 씻어내는 예식인 '페브루아(Febua: 정화, 성결) 행사'를 했다. 2월을 뜻하는 February는 여기서 비롯된 것이다. 로마인들은 긴 겨울이 끝나고 봄이 펼쳐지는 3월을 앞두고, 법적인 정화 의식을 행하며 정갈한 마음과 영혼으로 새로운 시작을 하려 했던 것으로 여겨진다. 이러한 로마인들의 자기반성과 성찰의식의 윤리는 로마제국의 찬란한 문화를 창출해내는 밑거름이 되었을 것이다.

유대인들도 모세가 두 번째 십계명을 받아 내려온 날로 알려진 유대력 티쉬레이월(7월) 10일을 대속죄일(욘 키푸르-Day of Atonement)로 정하여 하루의 곡기를 끊고 참회의 눈물을 쏟으며 국민적인 회개를 했다. (레 16장, 23장) 경건한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번 전통을 계승 받아 욘 키푸르를 지키며 히브리 문화를 꽃피우고 있다.

인간의 행복은 하나님, 그리고 사람과의 막힘이 없는 소통의 환경에서 비롯된다. 죄는 하나님과의 막힘을 가져오고 단절을 가져오기에 죄를 털어내야 한다. 스스로를 낮추고 십자가 밑에 나아가 회개할 때 막힘이 무너지고 새로운 은총의 세계가 열린다. 사람과의 막힘 역시 잘못된 언사를 고백하지 못하거나 시인하지 않을 때 결국 관계단절로 이루어지는데, 진정한 자기 고백과 행동이 뒤따를 때 소통이 있는 새로운 관계가 형성된다. 예수그리스도의 첫 메시지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마 4:17)였다. 그것은 새로운 시작의 첫 출발점이 죄와 허물에 대한 진정한 성찰과 고백이 전제되어야 할을 가르치고 있다. 자기 성찰, 성결 등은 새로운 세계로 나아가는 길이며, 소원했던 관계를 회복시키고 행복한 삶으로 향하게 하는 이정표이다.

이제 일출(立出)이다. 긴 추위가 우리의 삶을 얼어붙게 하고, 움츠리게 하지만 기반히 귀를 열고 기울이면 멀리 많은 곳에서 봄이 오는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이다. 삶의 현장과 교회 안에 깊게 뿌리내리고 있는 추운 겨울이 어서 끝나고 봄의 생명력으로 가득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하다. 봄빛이 준비를 해야 하지 않을까? 봄을 준비하기 위해 정화 의식을 하던 로마인들처럼 우리도 봄을 부르는 삶을 위하여 스스로 Febua(성결)할 수 있어야 한다.

'오라 나의 봄아, 나는 너와 함께 봄을 출 것 이니...'

清水 ehc3s@hanmail.net

## 제37회 평생교육원 목사안수대상자 교육과정

27명 참여 속 목회자로서의 품성 및 영성 교육

목사안수대상자 교육과정이 지난 1월 26일부터 28일까지 양평군에 위치한 시냇가푸른나무교회 수양관인 숲속작은나라에서 '오직 예수의 말씀을 들으라'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목회자로서의 정체성과 소명을 점검하고, 현장 목회사역을 성찰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교육 대상자 27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교육은 첫째 날 개강예배를 시작으로 8번의 세미나가 진행되었다. 제일 먼저 시냇가푸른나무교회 신유

백 목사가 주강사로 나서서 '목회자의 경건을 듣다'를 주제로 강의가 진행되었다. 이어서 △교단의 방향을 듣다 권순달 목사가 이어졌다.

둘째 날은 경배와 찬양으로 하루를 시작해 △성결의 세계화를 듣다 노윤성 목사 △사역의 현장을 듣다 부교역자권 △개척의 현장을 듣다 강정규 목사, 전승학 목사 등 강의와 간증이 이어졌다. 이 자리에서 강사들은 자신들의 목회 경험과 사역의 실재를 나누며 참석자들에게 현실적인 조언과 격려를

했다. 그리고 이들 간 이어진 저녁시간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듣다'(박현수 목사, 이규 목사)라는 제목으로 집회를 가져 참가자들에게 영적인 도전을 더했다.

마지막 날에는 교회 장례문화를 중심으로 한 '목회의 실재를 듣다'(고신원 목사)라는 강의 후 종강예배를 드렸다. 교육에 참석한 대상자들은 "짧은 일정이었지만 목회자의 길을 준비하는데 있어 큰 유익과 도전을 받았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이번 제37회 목사안수 대상자 교육은 예비 목회자들이 말씀 중심의 사역과 교단의 비전을 마음에 새기는 기회



가 됐으며, 앞으로의 목회 여정을 준비하는 중요한 시간으로 평가됐다.

한편 교육국장 임현교 목사의 사회로 드려진 개회예배는 교단총무 권순달 목사의 기도 후, 총회장 홍사진 목사가 '행복한 목회'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홍 총회장은 베드로전서 1장 9절

의 말씀을 가지고 "목회의 행복은 맡겨진 영혼들이 이끌어 반드시 천국에 가게 하는 것이 성공한 목회이며, 영혼의 구원을 이끌 수 있는 것이 목회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고 역설하고 "행복한 목회자가 되고, 목회의 철학이 분명한 목회자가 되기를 바란다"고 설교했다.

## 남전도회전국연합회 제39회 정기총회 및 세미나



총회장 홍사진 목사  
주찬양교회



남전도부장 강명국 목사  
늘사랑교회



박요섭 목사  
남부교회



이장호 장로  
비산동교회



차천용 장로  
남부교회

- 주 제: "성결복음을 세상 끝날까지" (마태복음 24: 14)
- 일 시: 2026년 2월 28일(토) 11시 ~ 17시까지
- 장 소: 성결대학교 흥대실홀(80주년 기념관 2층)
- 강 사: 말씀 홍사진 목사(총회장) · 세미나 박요섭 목사(남부교회)
- 등록비: 40,000 원  
※ 남전도회 회계통장: 신한은행 / 110-251-476370 / 회계 윤장성

### 초대의 글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전국교회와 남전도회 회원들에게 충만하시길 기도드립니다. 대망의 2026년도에 제39회 남전도회전국연합회 정기총회 및 세미나를 "성결복음을 세상 끝날까지"(마태복음 24: 14)라는 주제로 개최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예성의 남전도회 회원들을 정중히 초청하오니 바쁘신 일정 가운데서도 꼭 참석하여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번 총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결의 복음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온 세상에 전파하는 모임이 될 것을 확신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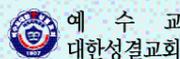
2026년 2월 3일

남전도회전국연합회 회장 이장호 장로 외 임원 일동

### 시간표

시간	행사 내용
11:00~13:30	접수 및 등록(식사)
13:30~14:20	개회예배(총회장 홍사진 목사)
14:20~14:50	환영 및 축하(내·외빈 소개)
14:50~15:00	휴식 및 친교
15:00~16:00	세미나(박요섭 목사/남부교회)
16:00~17:00	제39회 정기총회
17:00~	귀가

\* 일정은 진행상황에 따라 다소 조정될 수도 있음.



예수교 대한성결교회 남전도회전국연합회